

『백범일지』를 읽고 1)

김구 선생님!

얼마 전 저는 당신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읽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연히 꿈꾸어왔던 선생님의 족적(足跡)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여 보여 주셨지요. 멀게만 느껴졌던 ‘애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절절한 나라사랑 표현은 글 여기저기에서 묻어나옵니다. “나라는 내 나라요, 남들의 나라가 아니다.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삼천만이 저마다 이 이치를 깨달아 이대로 행한다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아니 될 수도 없고, 또 좋은 나라, 큰 나라로 이 나라를 보전하지 아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일진대, 오죽하였으면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자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평안한 현세(現世)를 만끽하는 저로서는 쥐구멍을 찾고 싶을 만큼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중략.....**

이제는 선생님의 진취적인 사상(思想)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1876년 황해도 해주부의 벽지(僻地)인 백운방 텃골에서 상놈의 신분으로 태어나 양반들의 멸시와 차별을 감내해야만 했었던 선생님은, 젊은 시절 비록 배운 것은 적었지만 그러한 불평등한 세상은 분명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셨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한 민족에게 자유를 속박하는 계급의 장애물은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당신은 담대히 그 굴레를 벗어나 사상

1) 필자가 백범 선생님께 올리는 ‘서간체’ 형식을 취했음.

적인 방랑의 길로 과감히 몸을 맡기셨습니다. **중략.....**

그러나 당신의 개혁정신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열렬한 애국심이 담겨 있었지만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했기에 당신의 마음은 지고지순(至高至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한 증용의 도(道)는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 민족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공산주의를 포용하는 아량을 통해 충분히 발휘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국무령이셨을 때 민주적인 국무위원제를 도입하신 것과 일제 패망 후 좌우익을 아우르는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하신 점, 그리고 의정원에도 좌파 사회주의 정당과 단체대표들을 야당의원으로 영입하여 의정원을 통일의회로 개편하신 점 등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는 명예로이 증용을 지키며 민족에 대한 사랑을 순수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공산주의자들의 간제와 모략으로 통일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당신의 그러한 진취적 포용정신은 후세가 길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략.....**

선생님의 자취를 더듬는 동안 제 이상(理想)의 폭은 넓어지고 생명의 활기가 더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목청을 높여 '희망의 나라' 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세(亂世)의 영도자, 그대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백범 김구여! 저래의 스승이여!

단군기원 4339년 00월 00일

○○○ 올림